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5호 [부제 제25834호] 주제 106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땅이 받쳐준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과제를 빛나게 수행한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오수용동지, 박태성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련합기업소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승리산혁명사적관과 연혁소개실, 혁명사적물보존실을 돌아보시였다.

1950년 10월 20일에 창립된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는 승리산기슭에 위력한 자동차생산기지를 일떠세워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의 자욱이



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특별 감사를 주시였으며 올해에 수행해야 할 생산목표도 정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전투적과업을 심장마다 새겨안은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드높이 부딪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맞받아 뚫고나가면서 과감한 총돌격전을 벌림으로써 지난 9월말까지 총조립을 전부 결속한데 이어 화물자동차들에 대한 주행시험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1965년 5월 16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전신인 덕천자동차공장에서 생산한 《승리-58》형화물자동차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문헌을 깊은 감회속에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의미깊은 사진문헌이라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련합기업소는 지난 기간 여러가지 형의 수많은 화

물자동차들을 생산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에 거대한 공헌을 할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19차례, 위대한 장군님의 9차례의 현지지도를 받은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자동차생산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서 생산한 새형의 5t급화물자동차들을 보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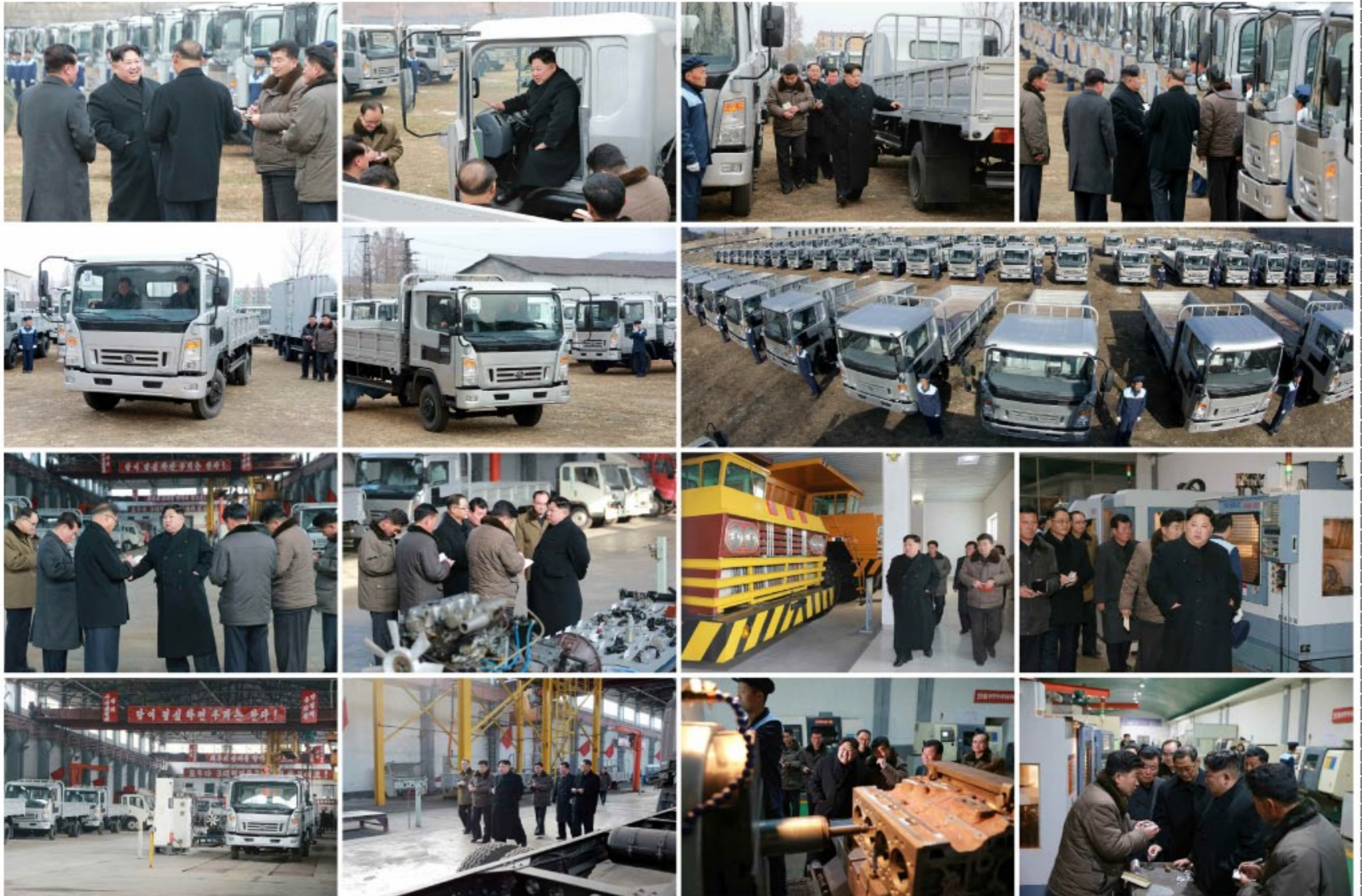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해 5월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총정의 로력적선물로 생산한 새형의 5t급화물자동차를 보아주시고 잘 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드넓은 주차장을 꼭 메우고 준비하게 서있는 새형의 5t급화물자동차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우리 로동계급이 자기의 힘을 믿고 떨쳐일어나 만들어낸 주체조선의 자동차들이라고, 불수룩 힘이 나고 흐뭇하다고 하시면서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몸소 자동차에 오르시여 운전을 하시면서 5t급화물자동차의 성능과 기술적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자동차의 발동소리가 고르롭고 변속도 잘되며 기관상태가 대단히 훌륭하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새형의 5t급화물자동차들은 당의 호소에 심장으로 화답하여 산악도며움기고 바다도 메우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투쟁본매가 낳은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만든 화물자동차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세상이 보란듯이 질풍처럼 내달리며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무궁무진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게 될것이라고 걱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

은 것처럼 어려웠던 전후시기 중중첩첩한 시련을 뚫고 맨주먹으로 40일만에 <승리-58>형자동차를 만들어낸 전세대 로동계급의 그 정신, 그 기백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당에서 정해준 기간에 새형의 화물자동차들을 훌륭히 생산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불수록 멋있고 정이 드는 우리 식의 5t급화물자동차들은 만리마시대에 탄생한 귀중한 재보이라고 하시면서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고 발악할수록 조선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은 더욱더 강해지고있으며 세상을 놀래우는 위대한 기적을 낳고있다는것을 새로 만든 5t급화물자동차들이 실증해주고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립직장, 정밀가공직장, 기관직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가 다음해 수행해야

할 화물자동차생산과제를 주시였으며 련합기업소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력을 강화하자면 자동차를 자체로 생산하는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화물자동차를 평방 생산할수 있도록 련합기업소를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현대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세계적수준의 화물자동차공업기지, 개발창조형 자동차생산기지로 전변시키자면 모든 생산공정을 고도로 현대화, 주제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개건현대화목표를 야심만만하게 높이 세우고 주도세밀한 작전과 과학적인 타산밑에 주요생산공정의 기술개건에 력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이미 마비된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원료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이고 로력을 극력 절약하면서도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일뿐만아니라 제품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최신과학기술성과와 세계적인 자동차공업발전추세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개건현대화의 성과어부는 생산과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인 로동자, 기술자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에 크게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백철불굴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양시키는것과 함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인것만큼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의 명도밑에 우리 인민이 애써 마련한 강유력한 공업도태가 있으며 당에 무한히 충직한 로동계급이 있기

에 점령 못할 요새만 없다고 하시면서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까지 개건현대화하면 우리 나라 튼튼기계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될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당이 제시한 개건현대화과업을 훌륭히 실현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수출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비약의 한길로 쫓달음칠수 있는 위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불라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무력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어 주었다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 정 은 동 지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수리아아랍공화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시정운동 47일에 즈음하여 당신께서 친필한 축하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당헌과 그리고 친선적인 귀국지도부와 인민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과 아울러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강성민정이 있을것을 가장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친선협조의 뉴대를 친선적인 우리 두 나라 인민의 리익과 복리에 무합되지 않고서 해나가려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17년 11월 19일

디마스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몽골인민당 제28차대회에 축전을 보내었다

울란바타르

몽골인민당 제28차대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몽골인민당 제28차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면서 대회를 통하여 귀 당 중앙위원회와 친제 당원들에게 따뜻하고 친선적인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몽골인민당 제28차대회가 당의 강회발전과 나라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귀 당의 활동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사자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계속 좋게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귀 당 제28차대회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106(2017)년 11월 20일

평양

백두의 칼바람은 최후승리를 부른다

백두산.
그 이름 조용히 불러보노라면 세상에 울부짖는 백두의 눈보라소리가 귀전을 울리고 장성을 떠인 천리수씨의 장엄한 모습이 눈앞에 떠오른다.
한번 불어지면 만리상공에 백설을 휘날려올리고 천지의 푸른 물결기로 격랑을 일으켜 절벽을 들부시며 지축을 휘흔드는 백두의 칼바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몇 해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에 오르신것은 그날이.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혁명가들은 백두의 칼바람을 알아야 한다고, 백두의 칼바람은 혁명가들에게는 혁명적신념을 버려주고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마스한 바람이 아닌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들에게는 돌풍이 되어 철수를 내리는 날카로운 바람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속에 영원히 불어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이며 온 세상 공은보화를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할 제일 귀중한 정신적보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그날의 말씀에 이 나라 천만군민이 백두의 칼바람을 그리도 사랑하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이며 주체조선의 승리적전진을 역세게 추풍하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명명백백한 대답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해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입니다.》
사람들이여, 잠시 슬픈 마음으로 일제와의 간고한 혈전을 벌이면 항일전의 그날들을 삼가 들켜보시라,
하늘에서는 적미행기가 무항을 살코하는 바람을 뿌리고 땅에서는 사면팔방에서 달려드는 간악한 일제의 무리들, 뼈속까지 얼어드는 혹

한 추위, 걸쳐드는 식량난, 무서운 병마와의 투쟁...
저 멀리 천교명에 새겨진 이야기가 오늘도 천만의 심장을 새차에 울려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이 만주요지에서 우리가 굶어죽고 얼어죽고 질 땅에 빠져 무항하기를 고대하고있다.
력사는 우리에게 아직 죽을 원리를 주지 않았다. 력사와 시대앞에서 자기앞에 부패된 피체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한줌 흙으로 사라져버린다면 그는 불초자이다. 한가정이나 가문의 명위를 위하여 넘어지기 싫어하고, 살지 않고 굶겨 죽은 인민앞에서 불초자가 되고마는것이다. 우리는 결코 불초자가 되지 않을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주저앉으면 조선인민이 일제의 영원한 노예가 된다...
그 어떤 천지공과에서도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이런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신 위대한 수령님,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정신은 그대 로 심장마다 새겨안을 할 일혁명투사들이었기에 그들은 말씀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이 땅에 조국해방의 력사적사명을 안아올수 있었다.
모진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완강히 공격하여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있었기에 우리 혁명의 전진대들은 가열치질했던 조국해방전쟁에서도, 전후 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서도 력사의 기적들을 창조할수 있었다.
지난 세계 90년대의 고난의 나날 우리가 어떻게 자위의 성세를 본뜬히 다질수 있었고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또 어떻게 다그쳐나갈수 있었는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암살책동, 경제적난관과 자연재해가 앞길을 막아시킨 그때 백두의 칼바람을 언제나 마음속에 새겨안시고 선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
원수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단호히 맞받아 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 솟아오른 문명의 창조물들을, 마시명스키장, 문수물놀이장, 풍파인민유원지,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 연통과학사휴양소, 미애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이더 그뿐만아, 세상을 들끓게들은 《3.18혁명》도, 《7.4혁명》의 쾌승도 그렇게 이룩되었으며 7.28의 기적적승리로 바로 이 땅에 백두의 칼바람을 새차게 일으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명한 명도가 안아온 위대한 승리물이다.
원수님께서서 일군들에게 우리는 혁명의 깃이 아무리 멀고 험난하다고 하여도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담겨져있는 사상과 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하면서 배가 부르지 가루가 떨어지던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의 한걸음에서 끝없이 싸우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으시고 력사의 새벽 길을 헤쳐가신 김형직선생님처럼, 아이비으로부터 물려받은 투사주의 철학을 밑천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이 땅에 사회주의라원을 펼쳐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처럼, 우리 조국을 그 어떤 테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처럼 자신에서도 혁명의 총대를 메어주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한걸음 변함없이 걸어갈수 드렸다는 신념을 피력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뜻있는 말씀에서 천만군민은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이 땅에 백두의 칼바람을 펼쳐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가 영원히 흐르도록 하시려는 철석의 의지를 심장깊이 새기었으며 최후승리의 그날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명세를 더욱 굳게 간직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연결만점으로 뚫쳐 그이의 명도따라 억척불변의 혁명적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처럼 폭풍처럼 내달리는 우리 천만군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백두의 칼바람은 주체조선의 최후승리를 소리쳐부른다.
본사기자 정순하

